

제34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 개요

- 가. 구 분 : 국립극단 제34차 정기이사회
- 나. 일 시 : 2019.02.25(월), 11:00
- 다. 출석현황 : 총 재적이사 9명 중 8명 참석 / 감사 참석
- 라. 참 석 자 : 이사장 김상헌, 이사 고희경, 길해연, 김성일, 김철호, 이상우, 이성열, 이재경 / 감사 김혁수
- 마. 간 사 : 사무국장 오현실

2. 보고사항

- 가. 제33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처리 결과보고
- 나. 국립극단 2018년 주요사업 실적보고

3. 심의안건

- 가. 제1호 의안 : (재)국립극단 2018년도 결산(안)
- 나. 제2호 의안 : (재)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안)

4. 의결결과

- 가. 제1호 의안 : (재)국립극단 2018년도 결산(안) - 원안가결
- 나. 제2호 의안 : (재)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5. 참고사항

- 가. 제34차 정기이사회 주요 회의록 1부

주요회의록

2019년 2월 25일

○ 의 장 :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

<성원보고>

이 사 장 : 안녕하십니까? 국립극단 제34차 정기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9명 중 8명 참석하셨고, 신임 김혁수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 장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고사항 보고, 안건 심의·의결 순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신임 이사님과 감사님의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사께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먼저, 연극·영화계에서 오랫동안 배우로 활동하신 길해연 이사님이십니다.

길 해 연 : 안녕하세요. 공연을 하는 배우로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사로 선임이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립극단의 위상이 높아져야 하고 연극인 사이에서 바른 위치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래 대학로와 국립극단이 가까워졌지만, 연극인과 관객이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앞으로 현장 연극인의 목소리 전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창작 공연 저작권 분야에 정통하신 이재경 이사님이십니다.

이 재 경 :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예술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역량을 발휘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 삼덕회계법인 상무 이사이신 김혁수 감사님이십니다.

김 혁 수 : 2014년에 명동예술극장 회계검사를 맡은 인연이 있으며, 문체부 산하 공기업 및 기관의 회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립극단 운영과 회계 감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 장 :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관 상 전체 이사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간 사 : 5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이 사 장 :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간 사 : 네

이 사 장 :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는 보고사항 2건, 심의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충분한 논의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 사 장 : 첫 번째 보고사항은 지난 제33차 정기이사회 의사록과 의결처리 결과입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3쪽, '제33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처리 결과' 보고함

이 사 장 : 지난 이사회에서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각 규정 개정에 대해 의결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음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대체로 우리 이사회가 12월 연말에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연초에는 직전

년도 결산에 대해 의결을 합니다. 정기이사회는 1년에 2회인가요?

간 사 : 네, 2회입니다.

이 사 장 : 인사·복무·보수규정 개정은 국가 법률이나 정책에 의한 개정으로 파악됩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1호를 접수하고 다음 보고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은 2018년 주요사업 실적보고입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4쪽, '2018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함

이 사 장 : 국립극단의 성격이나 위상으로 볼 때, 이사회의 역할은 예술감독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여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세부 수치(실적)보다는 이사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떨지 말씀 드립니다.

길 해 연 : 직전 예술감독님 때보다 객석점유율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요?

간 사 : 조금 낮아졌습니다. 연말 명동예술극장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한 <록앤롤>, <호신술>의 점유율이 높지 않은 사유입니다.

길 해 연 : 지난 해 국립극단의 공연을 보면서 연극인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 장 : 1~2% 떨어진 것인가요?

간 사 : 3%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 상 우 : 공교롭게도 연말 공연의 유료객석점유율이 낮습니다. 국민들이 연말에 관람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 성 열 : 그것보다 근현대극의 경우에 학기 수업과 연계하여 공연 시기를 잡았

습니다. 그러나 <호신술>은 연말에 공연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록앤롤>은 계절에 비해 너무 진지한 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자들의 성원에도 관객 호응이 낮았습니다.

고 희 경 : <록앤롤> 공연 당시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흥행 시기여서 관객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점유율이 저조해서 의아했습니다.

김 철 호 : 예술단 감독 경험도 있지만, 창작극이나 신작을 공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성과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예술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료 의식으로서 연극 발전은 전체 문화예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료점유율이 낮아진 것이 큰 실수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아쉽지만 계속 의욕을 가지고 시도를 해야 더 좋은 쪽으로 극단이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이 상 우 : 지방공연은 3편의 작품으로 몇몇 지방도시를 다녔습니다. 지방에서 초청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극단에서 장소를 정한 것인가요?

간 사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방과 국립예술단체를 연계해줍니다.

이 상 우 : 우수 레퍼토리의 지방 재공연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역할에 비해 지방 분포가 고르지 않아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 사 장 : 이 점은 중장기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희 경 : 국립극단이나 지방문예회관이 아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 분포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 열 : 사실 우리극단 작품을 초청하려는 지방이 많습니다. 다만, 무대나 객석 상황이 맞지 않아서 연계되었다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극단이 공연을 찾아가는 경우에 재정적으로 적자입니다. 방방곡곡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극단에서도 예산을 부담합니다. 지방공연은 확대할수록 적자입니다.

고 회 경 : 국립극단 입장에서 재정 부담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극단 프러덕션 규모에 따른 초청비 부담을 가집니다. 지방 관객들은 극단 작품을 관람하기를 바라지만, 지방극단에서는 거점 극단으로서 역할을 간섭 받는다고 이해하는 등 이견도 있습니다. 제안 드리는 점은 레퍼토리의 경우에 프러덕션 규모를 간소화 해서 순회공연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사 장 : 지방공연이 대표 꼭지는 아니지만 국내 연극계와의 소통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지방 상황과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하고요. 다음 회의에서 솔직한 국립극단의 입장과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점, 자체적으로 중장기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극계가 참 어려웠습니다. 블랙리스트 해결이나 미투운동 관련해서 예술감독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사회 횡수를 늘리더라도 예술감독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사회에서는 연극인을 대변하는 이사께서 부재하셔서 이행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차츰 이사회 구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임시이사회도 꾸려봤으면 합니다.

이 성 열 : 지난 해, 연극계에서 여러 사회 문제를 거치며 연극분야 전체에서 국립극단 위상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연극협회장과 서울연극협회 전 회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났고, 몇몇 원로 연극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산예술극장은 극장 이전 문제에 처해있습니다. 공공극장 중심으로 재편된 연극계의 한축이 무너지고 협회 위상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립극단에 과부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대감이 높고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름 우리극단에서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교육시스템 마련, 핫라인 개설, 공연계약서에 성폭력 예방지침 교부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네,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안에 대해 이사회가 파악을 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술감독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 성 일 : 예술감독님께서 부임하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바뀐 모습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 성과는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추이가 어떻게 되는 지, 또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었겠지만, 동회의 자료에서 이를 알 수가 없고 이후에 일목요연하게 극단 발전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립극단이 다양한 소통과 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명동예술극장 용도 변경 논란은 국립극단이 정통 연극의 길을 가는데 국민이나 국회의 시선이 어떠한 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이나 고객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예술교육도 필요하며 후원회를 비롯해서 극단에 대한 스폰서십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립극단이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을지 선도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 장 : 명동예술극장을 K팝 공연장으로 바꾸자는 것은 일단 지나간 것으로 파악되지만, 당시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의견 표명 등 움직임을 보여줬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명동예술극장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 경영적으로 명하고 보고를 받는 형태가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0년 극단 설립 이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대해 무언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길 해 연 : 오늘 회의에 처음 참석해보니 국립극단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중성과 예술성의 동시 달성은 아름답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수치(성과)에 대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더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성 열 : 명동예술극장 관련해서 문체부의 입장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성 일 : 결론적으로 명동예술극장은 당연히 연극예술 중심의 극장이고, 앞마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버스킹 공연이나 정동극장과 협업

등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이 성 열 : 여당 대표와 관광산업 관계자가 명동 상인을 만나면서 나눈 대화를 일간지 기자가 기사화 하면서 용도 변경 논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마치 문체부가 그 소청을 접수해서 검토한 것처럼 기사화가 되어서 침소봉대 격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은 올해도 청춘마이크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예정이고 내년에 앞마당 활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 사 장 : 네, 더 이상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제2호를 접수하고 심의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의안건>

이 사 장 : 제1호 심의안건은 2018년도 결산(안)입니다. 안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9쪽, '결산(안)' 보고함

이 상 우 : 감사님께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혁 수 : 국립극단 결산보고서 감사결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제표와 동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가 회계규정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결산보고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고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회계적으로 적정하다는 말씀을 주셨습시다만, 결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아껴 쓰면 차기년도에 삭감될 우려는 없나요?

간 사 : 차기년도 사업계획 구성 자체를 잘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 장 : 국립극단 예산을 증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성 일 : 대폭 증액은 어렵고, 신규사업 추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개발의 여지는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 아이디어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 장 : 안전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이의 없으시면 제1호 심의안건인 “2018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심의안건 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안)입니다. 안전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14쪽, ‘인사규정 개정(안)’ 보고함

이 사 장 : 법 취지가 예술감독님께 부정 청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라는 것이죠?

간 사 : 네

길 해 연 : 어떤 것을 청탁하는 것인가요?

간 사 : 취업 청탁입니다.

이 사 장 : 더 이의 없으시면 제2호 심의안건인 “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성 열 :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작년부터 제작공연 편수를 1편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는 법정 1주 52시간 근로제, 제작비 상승에 따라 그렇습니다. 더욱이 해가 지날수록 제작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이 사 장 :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표시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김 혁 수 : 영리기업처럼 사업을 하는 한다면 당기순이익이 의미가 있으나, 공공 예술사업에서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고, 고정적 인건비 등이 늘어나는 경향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 열 : 보조금의 증액없이 현재같은 수입구조라면 한 해에 1편씩 제작공연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사업비 신규 증액을 요청했으나 승인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동 사업에 2억원 정도 집행을 해야 하므로, 제작공연 1편을 불가피하게 감소시켰습니다. 우리극단에 후원이 있지 않으면 작품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 장 :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립극단 발전을 위해 이사회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사님들과 공연을 보고 여러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간 사 :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이상으로 제34차 정기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함.

| | | | | | |
|-----|-----|-----|-----|-----|-----|
| 이사장 | 김상현 | (인) | 이 사 | 고희경 | (인) |
| 이 사 | 길해연 | (인) | 이 사 | 김성일 | (인) |
| 이 사 | 김철호 | (인) | 이 사 | 이상우 | (인) |
| 이 사 | 이성열 | (인) | 이 사 | 이재경 | (인) |